우리나라의 자원 재활용제도

박 대 문
폐기물재활용과 과장

Ⅰ. 자원재활용의 의미

자원이라함은 자산의 형성 또는 일에 이용되는 총체적인 인적·물적자재의 근원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자원중에서 쓰레기가 되는 폐자원의 재활용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폐기물의 재활용은 사회적·경제적여건에 따라 지역별·시대별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변화하게 되며, 따라서 주변환경을 고려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제도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가 전인류의 공동관심사로 대두되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다량생산·소비형태의 경제발전은 인류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규모확대와 국민소득수준의 증가로 대기보전·수질보전·폐기물처리 문제등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해결과제로 등장하였으며, 특히 협소한 국토공간, 높은 인구밀도로 적당한 매립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존자원이 빈약하여 상당한 자원을 수입하는 국내여건을 고려할때 종래 단순히 버린다는 투기매립방식으로는 쓰레기를 더이상 처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당한 경제

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배경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이를 고려한 산업경제구조로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Ⅱ. 국내의 폐기물 재활용제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시행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에서 '92년까지 재활용분야를 언급하고 있었으나, '92.12월 재활용문제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지난 6월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법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주요업종·제품별 지정사업자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관리체계와 내용,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포장폐기물의 감량화등을 통한 발생량의 감소, 회수·처리비용 부담체계 정립을 위한 폐기물회수·처리비용예치금제와 처리비용부담금제, 재활용산업의 내실화를 위한 육성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요업종·제품별 재활용촉진제도

주요 폐자원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원료사용시 재활용이 촉진되어야 할 자원재활용업종으로는 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이 지정되었으며,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구조·재질등을 개선하고 이를 사전에 평가하게 하는 제1종 지정제품으로는 자동차 및 가전제품이, 제조업자가 제품의 생산시에 재질·성분 또는 분리수거에 관한 표시를 함으로써 수집·처리하는 자가 쉽게 재질을 식별하도록 하는 제2종지정제품으로는 캔류와 합성수지용기가 각각 지정되었다. 또한, 단순한 매립등의 처리보다는 적정한 재활용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규격이나 방법으로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지정부산물로는 석탄재, 철강슬래그, 건설부산물이 지정되었다. 이러한 네 분야의 각 업종·제품별 중점추진 대상업자를 정하고 특성에 따라 지정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설정하여 재활용측면의 적정한 지도·관리를 함으로써 제품생산량·해당폐기물 발생량·자원화기술 및 재활용 산업현황등 재활용여건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중심의 생산·유통체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시행

재활용촉진법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992년부터 도입·시행되었던 폐기물예치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예치금대상품목중 기술적·경제적으로 회수·재활용이 곤란한 품목을 부담금대상으로 전환하였다.

예치금제도는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종이팩·금속캔·타이어등 5종1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조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예치하게 한 후, 회수·처리시 이에 상당하는 예치금을 반환하는 제도로써 제품생산자에게 회수동기를 유발하고 판매경로 역회수체계를 구성·강화해 나감으로써 재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부담금은 환경상 영향이 큰 제품·용기로서 재활용이 곤란한 부동액·1회용기저귀등 9종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규정하여, 환경상 영향이 큰 폐기물로 배출되는 제품의 처리비용을 생산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불필요한 제품에 대한 생산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음료·주류용 유리병을 대상으로 공병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한 분리수거제도

'91년부터 도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분리수거제도는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폐

유리병등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시민이 별도 분리배출하고, 이를 한국자원재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아파트 쓰레기투입구의 폐쇄 분리수거용기 보급, 수거차량·인력등의 확충 등 다각적인 시책을 전개해 왔다.

분리수거제도에 있어 1차적인 재활용품의 별도 분리수거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폐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소비촉진(예를 들면 재생노트)으로 수요시장을 확대하여 재생산업의 내실화와 폐자원사용증대를 가져오는 것이 성패의 큰 요인인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천m²이상인 토지·건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분리수거 및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폐자원 물류조직의 활성화

폐자원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재생제품의 유통·판매·소비의 구조는 물론 자연스러운 자본주의적 시장구조의 형성에 의존하게 된다.

생산·유통·소비의 흐름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원재생공사는 폐기물유통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수요·공급처간 정보를 제공하고 폐자원과 재활용제품을 교환·알선하고 있다. 향후 이 센터에 전국적인 정보망을 갖춰 지역간 정보교환이 가능 하도록 할 것이다.

> *"원재활용재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폐기물감량화와 처리비용절감 시켜야하며 민·관이 재활용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효과적인 제도의 도입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재활용산업의 육성시책

국내 재활용산업계가 대부분 영세하여 적정한 기업규모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화 기술부족으로 상당부분의 재활용제품이 생산량과 질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재활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자원화 기술의 개발을 통한 재활용제품의 고부가치화, 재활용시설의 설치확대 및 자동화·기계화, 제조된 재활용제품의 수요창출로 시장규모의 확대등이 요구된다. 금융·세제지원책으로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공해방지시설자금에서 시설설치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폐자원수집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 부지확보를 위하여 공단내의 일정부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관련법령의 정비에 따라 공해가 없는 단순 수집·보관하는 업종에 대하여 입주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Ⅲ. 향후 재활용전망과 과제

이러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확대시켜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에 의한 자원의 수입대체 및 원료조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자의 제조·판매 활동등 사업행위시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생산·유통단계에서의 원천적 자원재활용 방안의 강구와 함께 재활용가능한 제품의 생산확대가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사회문화구조도 과생산·과소비형에서 자원절약형·자원재순환형으로 형성·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향후 폐기물재활용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효과적인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재활용촉진시책과 더불어 범국민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재활용제품구매운동이 확산되고 환경보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뤄나가기를 기대한다.